

무안군, 양돈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올해 돼지고기 최종 확정...이달 말까지 접수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거쳐 지급여부 결정”

무안군은 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면 FTA 이행으로 과수와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돼지를 한·미 FTA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생산하고 2019년에 돼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다만, 폐업지원금 대상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족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축산분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2013년~2014년 한우 36억원, 2015년 닭 9억원, 2018년 염소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경찰, 관내 초등학교 방문 교통안전용품 전달

신입생 대상 야광 가방등 전달 등 어린이사고 예방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10일, 녹색어머니 회장과 함께 관내 함평초등학교(교장 정병헌)를 방문하고 어린이 교통사

고예방을 위한 급년 신입생 70명 대상으로 야광 가방등 교통안전용품 전달과 아울러 급년 학기부터 새로 교체된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함평관내 초등학교는 총 11개 학교이며 올해 신입생은 154명으로 연초 개학시기에 맞춰 사고예방 교통캠페인과 안전용품 배부를 병행하여 왔으나 급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시기 및 녹색어머니회 재정이 늦어져 함평초등학교를 제외한 여타 학교는 녹색회장단을 통하여 야광 가방

달과 공책 배부를 완료했다.

정병헌 함평초등학교장은 “매일같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녹색어머니 회원님들께 감사하고 학교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열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스킨즈 내 어린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주변도로 시설개선 등 어린이 이동로 안전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사회단체 “마스크 착용 생활화”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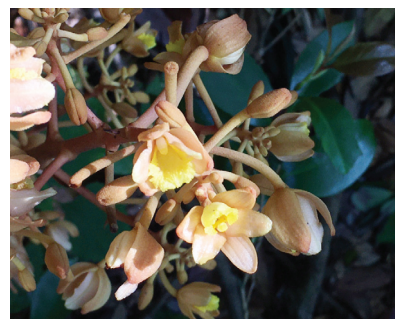
목포시 15개 사회단체 대표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목포역에서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전라남도 사회단체가 2단계로 격상해 집합이 제한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

라 목포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나와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자.”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신안 가거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으름난초’ 개화...국가적 색목록

신안군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국가적색목록’ 취약(VU) 식물인 으름난초가 가거도에서 개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으름난초는 난초과 여러해살이 풀로 썩은 균사에 기생하며 전체에 녹색 부분이 없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남방계 식물이지만 내륙으로 덕유산 부근까지 북상해 서식한다. 으름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열매 때문에 관상용으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자생지 훼손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으름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풀종은 다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나오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자리에서 올라오곤 하며, 꽃이 문



쳐서 피는 곳에서는 많게는 20~30개체가 한꺼번에 꽃대를 올리고 한 줄기에서 수백 송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신안군은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 산지습지와 갯벌습지, 생물다양성, 맨손어업, 염전 등과 같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갯벌을 등재 신청 중이다.

영암군, 영유아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62개소 대상 이달말까지 진행...코로나 방역수칙도 병행

영암군은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영유아 대상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에 나섰다.

이번 위생 점검은 식중독 사고에 취약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62개소가 대상이며, 교육지원청,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주요점검 내용으로 조리장 및 조리기구 위생상태, 위생모,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점검 외에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현장교육을 통해 집단 식중독 사전방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종교계에 코로나19 협조 요청

목포시가 지난 9일 지역 기독교 교회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목포시 교회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광주 및 전남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

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서는 정부가 7월 10일부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시행하고, 법정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교회에서도 가급적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가을배추 육묘 신청접수

영광군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20년도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불암플러스, 휘파람, 담양3호, 함양배추 등 품종의 육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가을배추 육묘신청은 4천관(51만2천주) 내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20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육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